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6. 1.22.(목) 8:00	담당기관	주영한국문화원

주영한국문화원, 'K-컬처 신년 홍보행사' 개최

- 선승혜 원장, “K-소프트파워, 이제는 ‘영향력’ 넘어 ‘공감’으로”
- 주영한국문화원(2023-2025) 성과 결산: ‘캠페인 전략’과 ‘대학 연계 확장’ 주효
- 2026 신년 특별대담: AI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문화의 역할 제시

□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이하 문화원)은 2026년 1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K-컬처 신년 홍보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영국 내 K-컬처 확산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한국 문화가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1부 ‘2023-2025 K-컬처 성과 보고’에서는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문화외교의 핵심 전략과 성취를 발표했다. 선 원장은 이 자리에서 SWOT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운영 결과를 공유하며, 단순한 행사의 나열이 아닌 ‘담론과 연결’ 중심의 구조적 전환을 이뤄냈음을 강조했다.

○ 선승혜 원장은 성과 보고를 통해 “K-소프트파워, 이제는 ‘영향력’ 넘어 ‘공감’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은 주영한국문화원이 단순한 행사 개최지를 넘어, ‘뜻을 펼치다’라는 한국 미학을 기반으로 영국 주류 사회와 한국 문화를 잇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도약한 시간”이라며, “이를 통해 K-소프트파워의 국제적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 이어 선 원장은 “특히 ‘K-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넘어 공감으로(From Influence to Empathy)’라는 비전 아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던 사업들을 ‘한국 연결(Connect Korea)’, ‘한국문화, 지금!(Korea Culture, Now)’

과 같은 연간 캠페인으로 구조화했다”며, “이미 강점인 음악·영화 분야는 확산을 돕고, 약점이었던 문학·교육 분야는 부커상,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등 영국의 핵심 생태계와 직접 연결해 강점으로 전환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 또한 문화원은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 최초 ‘코리아 데이’ 개최를 통한 학술 네트워크 확장 ▲‘K-Culture Forum’ 신설을 통한 담론 형성 ▲AI와 문화유산을 결합한 3개년 프로젝트(K-헤리티지, 디지털 문화유산 등)를 주요 성과로 꼽으며, 한국 문화가 영국 내 지성계와 기술 예술 분야로까지 저변을 넓혔음을 확인했다.

□ 이어지는 2부 ‘2026 신년 특별대담: 창의성, AI 기본사회와 문화’에서는 선승혜 원장과 유영진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경영학과 교수가 대담자로 나섰다. 두 사람은 ‘아포리아(Aporia): 완벽한 알고리즘과 파격의 인간’을 주제로, AI 시대에 문화와 창의성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AI 기본사회와 인간의 역할 ▲AI와의 공진화(Co-evolution) ▲예술가의 시선 등 경영과 철학을 넘나드는 AI 미학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선승혜 원장은 AI 기본사회의 문화 전략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한국 문화가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 기술과 거대 팬덤을 보유한 한국 문화가 이제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제 뜻을 펼치다’라는 훈민정음의 정신을 기반으로 서로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공감’과 ‘연대’의 보편적 가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연결 고리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 유영진 교수는 “생성형 AI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 - 창의성, 공감성 - 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히 생성형 AI가 인간의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 혹은 해가 된다고 하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서, 이를 계기로 창의성이 무엇이

고, 무엇이 창의성을 만드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나아가 “기술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효과는 단순히 기술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기 보다는, 그 기술이 어떻게 조직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런 맥락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필요한 자본의 속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 속에는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를 한다. 그와 같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보게 되면, 단순히 AI가 좋다 나쁘다는 관점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AI를 도구로 사용을 하고, 조직과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이 조금씩 보이게 된다”라고 전망했다.

□ 이번 행사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어 주영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지난 3년간의 상세한 활동 기록과 성과를 담은 자료집은 문화원 공식 홈페이지(www.kccuk.org.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K-컬처 신년 홍보행사’ 개요
2. ‘K-컬처 신년 홍보행사’ 이미지

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s.sun@kccuk.org.uk)
		담당자	실무관 김다석 (dasuk.kim@kccuk.org.uk)



붙임1 행사 개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K-컬처 신년 홍보행사
- 일 시: 2026년 1월 21일
- 방 식: 온라인 (주영한국문화원 공식 채널)
- 주요내용:

(1부) 성과 보고: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

- 2023-2025년 주영한국문화원이 성취한 영국 내 K-컬처 주요 성과 보고

(2부) 특별 대담: ‘창의성, AI 기본사회와 문화’

-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 x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유영진 교수
- 주제: 완벽한 알고리즘과 파격의 인간, AI 기본사회와 향후 K-컬처의 방향성 논의

붙임2 행사 이미지

	
<p>K-컬처 성과 보고_주영한국문화원장 선승혜</p>	<p>특별대담 “AI기본사회와 문화”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 LSE 유영진 교수</p>